

1987년 정기총회 개최

본 협회는 지난 5월 8일 여의도 소재 성모병원 강당에서 전국회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무총장 조성훈 교수의 사회로 1987년도 정기총회와 봄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교회의료사업에서 본 가정의학의 의의」를 주제로 한 이날 세미나 개최 인사에서 협회장 김대군 신부는 「우리 교회의료사업은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구현하는 것이 되도록 힘써야 한다」고 전제하고 「우리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협력과 유대를 돈독히하여 더욱 발전해 나가는 협회가 되도록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이어서 첫번째 주제발표에서 허봉렬 교수(서울대학교병원 가정의학과장)의 「한국에서의 가정의학제도의 과거, 현재, 미래」, 두번째로 이태준 교수(강남성모병원 가정의학과장)의 「교회의료사업에서 본 가정의학의 의의」 등의 연제의 강연이 있었다.

오후에 조규상 교수(가톨릭중앙의료원 의무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종합토의에서 의료보장의 확대실시를 앞두고 가정의 제도가 교회의료사업의 목적달성에 가장 바람직한 의학적 영역이라는 점에 모두가 공감하였다. 그러나 가정의학의 시행 초창기에 있어서 수련교과과정, 진료영역, 기능과 역할 등에서 파생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보완하여 새 제도가 빨리 정착하도록 가톨릭의료기관이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결론 지었다.

세미나에 이어 속개된 정기총회에서는 임기가 만료된 임원개선이 있었는데 협회장 김대군 신부와 사무총장 조성훈 교수가 유임되고 부회장에 대전성모병원장 및 대구파티마병원장이 선출되고 메리놀병원장 등 10분의 이사 병원장을 아래와 같이 선출했다.



가정의학 세미나 종합토의

임원명단

(임기 : '87. 5~'89. 5)

• 협회장

가톨릭중앙의료원장김 대 군 신부

성빈센트병원장힐테가르드히제 수녀

• 부회장

대전성모병원장유 봉 운 신부

포항성모병원장박 순 이 수녀

대구파티마병원장여 귀 남 수녀

가톨릭병원장박 병 원 신부

성바오로병원장방 용 자 수녀

• 사무총장

가톨릭중앙의료원 기획실장조 성 훈 교수

목포성골롬반병원장세 실 리 아 수녀

가톨릭피부과의원원장엠 마 프 라이 싱 거

• 이사

가톨릭중앙의료원 의무원장조 규 상 교수

가톨릭의원원장하 이 디 수녀

메리놀병원장윤 경 철 신부

• 감사

성모자애병원장박 순 일 수녀

성가병원장이 완 영 수녀

부산성분도병원장서 상 자 수녀

「가톨릭의료기관의 이념」 제정

이번 총회에서는 그동안 여러차례 협의를 가지고 마련한 「가톨릭의료기관의 이념」을 심의 채택하고 모든 가톨릭의료기관 종사자들에게 이념교육을 실시하여 교회의료사업의 기본적 사명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여 이념구현에 더욱 힘쓰기로 다짐했다(이념전문 표지 안면 참조).

1987년도 무료개안수술사업

1983년부터 천주교 200주년 기념사업으로 본협회가 주관하고 있는 영세민 무료개안수술사업은 3년간에 1350명의 실명자에게 빛을 찾아주고 1986년에 지속사업으로 재개한 가톨릭 무료개안수술사업은 지난해(1986년)에 127명을 무료시술한 바 있다.

본 협회는 금년도 시술목표를 132명으로 잡고 산하 12개 지정의료기관에서 무료시술이 진행중인데 11월말 현재 이미 목표인원을 초과하여 140명을 시술하였다. 금년도 지정병원의 시술목표는 아래와 같다.

성모병원 22명, 강남성모병원 22명, 성바오로병원 8명, 부천성가병원 7명, 성모자애병원 6명, 성빈센트병원 7명, 메리놀병원 17명, 부산성분도병원 6명, 대구파티마병원 6명, 가톨릭병원 8명, 대전이안과 11명, 광주홍안과 12명.

한편, 캐나다 교민단체인 벤쿠버 기독한인 명인후원회(회장 : 김운중)에서는 본 협회의 무료개안수술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성금을 기탁해왔는데 연말까지 10명의 수술비를 보내올 계획이며 현재 이 지원금으로 서울, 대전, 광주 교구에서 추천한 영세민이 진료를 받고 있다.

회무 보고

에파돌 난민돕기 약품수집 사업지원

본 협회는 한국가톨릭의사협회(회장 : 안용팔)가 주관하는 에파돌 난민돕기운동에 참여하여 산하 24개 가톨릭의료기관의 도움으로 75박스(약 600kg)의 많은 의약품을 수집하여 약품보내기 운동을 지원하였다.

에파돌 사막지대에서 활동중인 우리나라 선교사들에 의하면 다수의 빈곤한 주민들이 질병으로 허덕이고 있으나 약품이 없어 치료를 못해주고 있다면서 우리 교회에 지원을 청해온 바 있었다.

한국가톨릭의사협회와 본협회는 지난 5월부터 전국 가톨릭의료기관과 전국 가톨릭의사 및 제약회사에 도움을 청하여 수집한 1톤 가량의 의약품을 9월에 현지에 공수했었다. 일전에 우리 선교사로부터 감사의 회신을 보내왔는데 그곳에서 필요한 약을 골고루 보내주어 감사하다면서 그 나라 보사부에서 매우 기뻐하며 그곳 본당에 정식으로 보건진료소 허가증을 받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한다.

약품보내기 운동에 참여한 가톨릭의료기관은 아래와 같다.

성모병원, 강남성모병원, 성바오로병원, 서울성분도병원, 서울성프란치스코의원, 부산성분도병원, 메리놀병원, 대구파티마병원, 가톨릭병원, 성모자애병원, 인천해성의원, 광주천주의성요한의원, 부천성가병원, 성빈센트병원, 의정부성모병원, 평화의모친의원, 정선성프란치스코의원, 보은성모의원, 옥천성모병원, 증평수녀의원, 포항성모병원, 마산파티마병원, 대전성모병원, 익명 1개의원.

창립 20주년 기념세미나 개최

본 협회는 창립 20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10월 30-31양일간 대전 가톨릭교육회관에서 전국회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회안에서의 장애인복지사업의 방향」을 주제로 기념세미나를 개최했다.

첫날 개최식 인사에서 협회장 김대군신부는 『우리는 전국 여러곳에서 떨어져서 일하고 있으나 한 목표를 향해 예수님의 치유사업을 재현하기 위하여 서로 협력하고 있다』고 말하고 『창립 20돌을 맞으면서 선배들이 이룩해 놓은 전통을 이어받아 우리의 사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 가톨릭병원의 이념구현에 힘을 모으자』고 강조하였다.

이어 첫번째 주제발표에서 안용팔(가톨릭의대)교수의 「교회안에서의 장애인 복지사업의 현황과 앞으로의 방향」, 두번째로 강세운(강남성모병원 재활의학과장) 부교수의 「의학적인 측면에서의 장애인 재활」 등의 연제강연이 있었다. 안용팔 교수는 주제강연에서 『장애인 복지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충족시키려고 우리 교회가 힘써 온 결과, 국내 복지사업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하고 『장애자를 사랑과 이해로서 육체적인 장애뿐만 아니라 마음의 장애까지 바로 잡아주어야 참된 장애인 재활이 된다』고 강조하고 사회가 우리 교회에 기대하는 바 크다고 역설했다.

「가톨릭병원의 이념」을 주제로 한 특강에서 최창무 신부(서울 가톨릭대·윤리신학 교수)는 『가톨릭병원의 이념적 특징으로 인간의 존엄성, 생명의 신성불가침성, 자연의 진리와 신비에 대한 성실하고 겸허한 탐구 등을 꼽을 수 있다』고 말하고 이런 이념적 바탕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사명을 실천하는 것이 가톨릭병원의 본분임을 강조했다.

둘째날에는 「오늘의 노사문제」에 대한 특강(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최철호)과 대전교구 경감룡 주교님의 축사의 말씀이 있는 후 대전성모병원장 유봉운 신부께서 마련한 오찬을 들고 폐회했다.

한국가톨릭병원협회 창립 20주년 경과보고

- 1967년 가톨릭계 의료기관들이 의료사업을 통하여 교회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본협회를 발족한지도 어언 20돌을 맞이하였고 이제 성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가톨릭병원들간의 친목을 비롯하여 의료활동에 있어서의 협력, 세미나를 통한 의견 교환과 정보 전달에 힘써온 보람이 있어 서로의 공동의식이 형성되었고 또한 협회 존립의 의의를 모두가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 그중에서도 매년 봄과 가을에 개최한 38차례 세미나는 병원사목, 병원관리, 의학윤리, 행복한 가정운동, 호스피스활동 및 가톨릭 의료인의 역할 등 의료문제 중에서도 가톨릭병원들의 관심사가 주제가 되어 여러 사람들의 공감을 받았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별표 참조)
- 현재 천주교회에서 운영하는 의료 기관은 병원 26개, 의원, 진료소 등 24개, 모두 50개이고 총 병상수는 7,400개로 우리나라 전체 병상수의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1,550명의 의사 3,700명의 간호원 등 모두 1만여명의 종업원이 교회의료 사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 또한 본 협회는 한국 천주교회 200주년 기념사업의 하나로 1983년에 시작한 무료 개안수술 사업을 주관하여 산하 가톨릭의료기관에서 가난한 실명자 1,700여명에게 빛을 되찾아 주었고 나 사업, 결핵사업, 행복한 가정운동, 심신장애자들을 위한 복지사업 및 영세민 등에 대한 자선 진료에 주력하여 가톨릭의료사업의 고유함을 부각시키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연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1967년 9월 22일 가톨릭병원 대표 23명이 가톨릭의대 강당에 모여 창립 총회를 가지고 초대 협회장에 양기섭 신부님 그리고 총재에 안제오르지몬시놀 주교님을 추대하였습니다.
- 1968년 3월에 제 2대 협회장에 유수철 신부님이 취임하였고
- 1973년 11월에 제 3대 협회장으로 김창렬 신부님이 취임하였으며
- 1983년 12월에 제 4대 협회장으로 김대군 신부님을 모시고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 1973년 2월에 본 협회에 “행복한 가정 연구위원회”를 설치하고 가톨릭 가족계획사업을 지도 보급하였고, 1975년 5월 이 기구가 주교회의 산하로 이관되어 행가운협의회로 새출발 하였습니다.
- 1983년 5월부터 한국천주교회 200주년 기념 개안수술 사업을 주관하여 현재까지 1,700여명을 무료 수술하였고, 현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 1987년 5월, 정기총회에서 가톨릭의료기관들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는 “가톨릭의료기관의 이념”을 제정하고 이념 구현에 힘쓰고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가 협회 활동에 참여하는 목적은 의료활동을 통하여 사랑을 구현하는 방법을 의논하고 실천을 상호 고무 격려하는 데 있으며 특히 벽지와 영세민 지역에서 힘겨운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작은 의료기관들과 같이 손잡고 협조하는 나눔의 현장이 되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창립 20주년을 맞아 모두 주인의식을 가지고 우리 협회가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협동적 활동에 힘쓸 것을 다짐하는 의의있는 자리가 되었다고 믿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창립 20주년 보고 말씀으로 가름합니다.

한국가톨릭병원협회 사무총장 조성훈